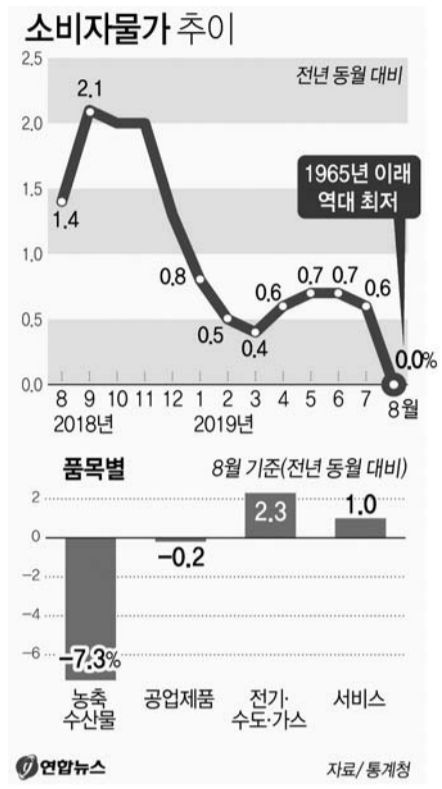


# 광주·전남 물가상승률 4년만에 '마이너스'



### 8개월째 1% 밑돌다 8월 '-0.1%'...농축수산물·유가 하락 영향

## 전국 사상 첫 '마이너스'

광주·전남 물가상승률이 4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농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 당국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디플레이션' (장기간 물가 하락 현상)에 접어들어 가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기준)는 광주 104.36, 전남 104.8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광주·전남 모두 각각 0.1% 하락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기록된 '마이너스대' 전년대비 상승률에 이은 최저 상승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광주 0.5%, 전남 0.9%를 기록한 이후 연속해 1%를 밑돌다가 이번엔 0% 아래로 주저

않았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지난해 같은 달(104.85) 대비 0.0% 상승률을 보였다. 호남통계청 측은 생산 과잉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하락과 기름값 하락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한 8월 농축수산물 물가 하락률은 광주 5.8%, 전남 4%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무가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57.5%나 떨어졌고, 배추(-36.3%), 고등어(-17.6%), 수박(-41.6%)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전남지역 무, 배추, 수박가격도 30%대 하락 폭을 보였다. 광주에서 가격이 오른 농수축산물에는 쌀(9.1%), 갈치(16.6%), 현미(23.2%), 국산 쇠고기(1.8%) 등이 있었고, 전남 역시 쌀(6.8%), 갈치(23.1%), 현미(26.9%), 국산 쇠고기(2.4%)가 올랐다.

어깨류·채소류·과실류를 포함한 신선식품 지수는 광주 12.6%, 전남 7.4% 떨어져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세를 반영했다. 지난달 종료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국제유가 하락도 물가 하락에 한몫했다. 광주·전남지역 공업제품 물가 하락률은 각각 0.4%를 기록했는데 휘발유와 경유값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호남통계청 측 설명이다. 휘발유 가격은 광주 8.2%, 전남 7.7% 떨어졌고, 경유도 광주 5.2%, 전남 4.1% 하락했다. 송중규 호남통계청 경제조사과 팀장은 "이달부터 유류세가 환원돼 기름값이 오르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41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광주 0.7%, 전남 0.9% 하락했고, 공동주택관리비 상승의 영향으로 서비스 품목 물가는 두 지역 모두 0.9%씩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셀프 슈퍼바이징을 하라

개인창업 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바로 슈퍼바이징이라는 가맹점 관리 시스템이다. 슈퍼바이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가맹점 매출의 극대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주요 목표로 한다. 매장 운영을 가맹점에 맡겨두지 않고 본사가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좀 더 강한 매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종의 '투톱' (Two Top) 시스템인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개인창업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실행해야 되다보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리방식과 경쟁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또한 가맹점이 가맹점주의 1인칭 시점과 본사의 3인칭 시점이 조화를 이루어 객관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라면 개인창업 1인칭 시점의 관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주관적인 관리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얼핏 보면 그런 차이가 작은 차이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전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객관적인 방식에는 고객의 시각까지 매장 운영에 적용이 가능해 주관적인 방식은 오직 창업자 개인의 시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개인창업자들의 3인칭 시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그건 바로 셀프 슈퍼바이징이다. 비록 가맹 창업은 아니지만 슈퍼바이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매장 운영의 객관성을 위해 제3자의 시각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먼저 슈퍼바이징은 주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개념일까를 알아야 한다.

슈퍼바이징은 크게 6단계의 과정을 거쳐 관리하는 방식이며 그 6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체크다. 점포의 오퍼레이션 레벨, 전표, 임금, 시스템 등이며 조화, 점검, 검사 단계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코디네이션이다. 코디네이션은 일종의 조정이며 점포 전체의 진단과 분석 등을 통한 재평가를 통해 관리나 운영의 조정을 하는 행위다. 세 번째는 컨설팅이다. 관련 업계의 동향이나 제품, 서비스 등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매장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카운슬링이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업무 외적인 부분에도 서로 상담·협의해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컨트롤이다. 통상적으로 컨트롤은 가맹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맹점의 준수에 대한 일종의 본사 차원의 통제다. 자체 사입이나 매장, 메뉴, 제품, 서비스 관리가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체크이자 관리감독이다. 여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본사와 가맹점이 상호 의견이나 요구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교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듯 6단계를 살펴보면 개인창업자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컨설팅, 카운슬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부분은 창업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카운슬링 부분은 주변 지인들과의 잦은 교류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농협 전남본부,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알뜰장터 개장

### 하나로마트 남약점서 5일까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3~5일 하나로마트 남약점 야외 행사장에서 '2019년 추석맞이 전남 우수 농·특산물 알뜰장터'를 운영한다. 알뜰장터에서는 전남도 과실공동브랜드인 '상큼에' 사과와 무화과 등을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또 농협이 집중 육성하는 아열대 작목인 강진 바나나와 영암·보성 배, 곡성 메론, 장성·담양 포도, 화순 대추방울토마토, 장흥 표고버섯, 해남·영광 고구마 등이 매대를 채운다. '고흥 강소농' 합평 나비골 한과 등 가공품 판매공간도 마련된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 농축산물과 융복합제품의 우수성이 더욱 알려져 소비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백년 농협, 국민의 농협을 선도하는 전남농협

## 2019 추석맞이 전남 농·특산물 알뜰장터

일차 2019. 9. 3. ~ 9. 5. 장소 하나로마트 남약점 야외 행사장 주최 주관 전남농협 후원 하나로마트 남약점

농산물 소비축진하GO 농가소득 높이고GO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김석기)가운데는 3~5일 지역 농산물을 20~30% 저렴하게 내놓은 '추석맞이 전남 우수 농·특산물 알뜰장터'를 운영한다. <전남농협 제공>

## GDP, 2분기 성장률 1%로 하향조정

### 'GDP 물가' 13년만에 최저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로 수정됐다. 속도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59조8134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집계됐다.

1분기 GDP 455조810억원보다 4조7324억원(1.04%) 증가했다. 실질 GDP 증가율은 지난 7월 발표된 1.1%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다.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7년 2.8%, 지난해 2.9%에서 올해 2.0%로 낮아졌다. 성장률 잠정치가 속도치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6월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 반영된 결과

다. 1분기 성장률도 잠정치는 -0.4%로 속도치(-0.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정부소비 증가율이 높아진데 따른 영향이 컸다. 성장률을 산업별로 나눠 보면 농림어업 -3.6%, 제조업 1.1%, 건설업 1.6%, 서비스업 0.8%다.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1분기 역성장의 기저효과가 깔린 2분기 성장률(1.0%)에 이어 3·4분기에 0.9~1.0%씩 성장해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잠정치 발표에선 속도치 때 없던 국민총소

득(GNI)이 계산됐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 실질 GNI는 453조 3080억원으로, 전기대비 0.2%를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3% 늘었다. 'GDP 디플레이터'는 -0.7%를 기록했다. 2006년 1분기(-0.7%) 이후 최저다.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0.1%), 올해 1분기(-0.5%)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만큼 저물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연말뉴스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